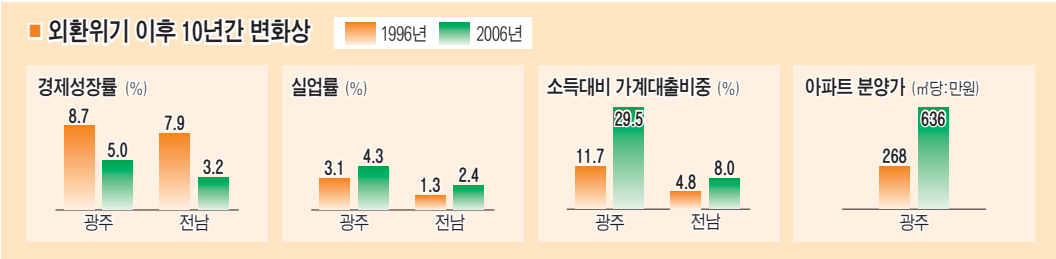


IMF 10년, 광주·전남은...



중산층 사라졌다

21일은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각종 통계수치로 볼때 위환위기 이후 10년간 지역경제는 저성장과 저고용, 저물가 등 이른바 '3저(低)현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몰라,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위환위기 직전인 1996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GDP)은 광주 8.7%, 전남 7.9%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뒤인 2006년은 광주 5.0%, 전남 3.2%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전남은 특히 투자위축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10년동안 경제성장률이 4.7%포인트나 떨어져 16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제성장률 반토막 실업자 2만명 늘어 양극화 갈수록 심화

고용사정도 악화돼 실업률은 10년동안 광주가 3.1%에서 4.3%로, 전남은 1.3%에서 2.4%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통계상 실업자수도 2만9천300명에서 4만9천700명으로 2만명이 넘게 늘었다. 더구나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광주가 47.7%에서 50.5%로, 전남은 48.2%에서 52.4%로 높아져 고용의 안정성도 저하됐다.

양극화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가계로,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늘어난 서민층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

10년동안 가계대출 규모는 광주가 4.3배, 전남이 3.1배 늘었고 소

득 대비 가계 대출 비중도 광주가 11.7%에서 29.5%, 전남이 4.8%에서 8.0%로 상승하는 등 가정경제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 광주·전남의 경우 연간 3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1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소비여력도 줄어들었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대에서 광주 3.8%, 전남 1.4%로 급감했다. 또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96년 268만원에서 올해 636만원으로 2.3배 올라 서민들이 새집으로 옮겨가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 백화점 매출에서 상위 고객 20%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80%에 육박하는 등 10년동안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명품매장의 매출도 광주신세계의 경우 올해 지난해보다 100%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F1특별법 무산...대회 좌초 위기

서남권법도 국회 통과 불투명...J프로젝트 차질

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F1특별법)과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

여기에 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서남권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도 비관적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1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F1대회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경리는 등 F1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또 F1이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J프로젝트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호남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보였으나 F1특별법과 서남권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호남 배려의 진정성이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F1특별법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특별법과 F1특별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문광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불발,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또한, 광주과기원법 개정안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시급한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위를 일정을 잡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는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에 대해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광주지역 일부 대학 측에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서남권특별법의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법안심사위원장이 윤두환 의원 등 한나라당 위원들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위원이 서남권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범도민 한마음대회'가 20일 오전 전남도청 로비인 윤선도홀에서 열렸다. 한마음대회 이후 박준영 전남지사, 노진영 지방유치위원장, 도내 22개 시장·군수 등 1천여명의 참석자들이 유치를 염원하는 2012개의 풍선을 날리고 있다. /무안=위정량기자 jrwi@

“파리 낭보 꼭 전하겠습니다” 대표단 출국

여수엑스포 결정 D-6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6일 앞두고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이 21일 낮 12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전세기 편으로 출국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 <관련기사 3·14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김재철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여수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 참가단도 이날 출국, 프랑스 현지에서 여수엑스포 홍보와 길거

리 응원을 펼친다. 대표단 출국에 앞서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계동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BIE 총회에서 선보일 프레젠테이션(PT) 리허설을 진행한 후 세계박람회 유치 파견단 출정식을 갖고 결의를 다졌다.

같은 날 오전 전남도청 로비인 윤선도홀에서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도민 한마음대회가 열려 2012 여수엑스포 유치로 전남의 획

기적인 발전을 이루자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유치위원회 중앙 7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전남과학대

http://www.jnsci.ac.kr

“한국에 이면계약서 보냈다”

에리카김, BBK 폭로 회견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21일 새벽(한국시간·미국시간 20일 낮)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BK 주가조작 사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에리카 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면계약서 'BBK 연루 의혹'과 관련, BBK 투자자문에 대한 이 후보 실질적 소유 여부를 드러내 보이는 '이면 계약서'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카 김은 이에 앞서 이 이면계약서를 한국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정국이 또 한번 격랑 속으로 휩싸이면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스트릭스” 국민보건 캠페인

혈전, 혈관의 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릭스